



“정체의 시기 끝, 전북의 새 물길 열겠다”

정현을 익산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

전북 현안 국가와 해결
새만금 전략 전면 수정
전북형 자치도 구축 등
세가지 변혁 과제 제시
도민 참여도정 실현 등
5대 도정 비전도 내놓아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정 시장 지지자 70여명이 자리해 정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정 시장은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잃어버린 5년을 끝내고 전북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굳은 목소리로 출마 의 변을 밝혔다.

정 시장은 먼저 지난 5년여의 시간을 “전북 정체의 시기”로 규정했다.

그는 “전북의 시간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였는데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에게 떠넘기는 동안, 도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실력 있는 도정이 필요하다. 익산에서 검증된 행정 역량으로 전북의 변혁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증명’은 익산에서의 10년이다. 정 시장은 익산 최초 3선 익산 시장이 되었고, 취임 초부터 도시 약취·불법매립 등 고질 문제 해결에 매달렸고, 난제로 평가받던 민간 특례공원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최근 익산의 청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사실도 그는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전북 어디에서도 하기 어려웠던 변화를 익산에서는 현실로 만들었다”며 “행정 경험과 추진력이 뒷받침된다면 전북도 마찬가지로 변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그리고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3대 클러스터를



정현을 익산시장의 지난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중심으로 익산을 첨단산업의 중심도시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전북 대전환’이었다. 정 시장은 전북이 더 이상 주변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전북의 문제는 전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주·완주 통합, 인공태양 사업, 새만금 현안 등은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 오랜 인연을 가진 분이자 정치적 롤모델”이라며 “올해 안에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논하는 타운홀 미팅이 절실한 타이밍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반부에서 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시 언급하며 “전북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함께 싸워온 경험이 있다. 검증된 위기 대응 능력과 일관된 원칙, 도민을 향한 책임을 바탕으로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완주 통합은 더 이상 미

계를 국가 주도로 육성해 전북의 성장 축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전북형 특별자치도’ 구축이다.

정 시장은 “특별자치도가 도민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전북이 독자적 전략 산업과 규제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구체적인 도정 청사진도 내놓았다. 도민 참여도정 실현, 14개 시·군 균형성장 체계 정립, 복지 지역경제 통합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새만금 개발의 국가주도 재정립을 포함한 ‘5대 도정 비전’이 그것이다.

기자회견 후반부에서 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다시 언급하며 “전북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함께 싸워온 경험이 있다. 검증된 위기 대응 능력과 일관된 원칙, 도민을 향한 책임을 바탕으로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완주 통합은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전북은 실패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 준비된 도지사, 일할 줄 아는 도지사가 필요한 때”라며 “저 정현율이 전북의 물길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현을 시장은 1958년 익산출생으로 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민선 8기부터 10기까지 익산 시장으로 재임하며 익산 발전에 헌신했다.

기자회견장은 정 시장의 도지사 공약 등에 대한 세밀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에너지·산업 대전환 시대 선도 새만금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청, 이 대통령에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확대·AI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AI·로봇 기반의 산업 혁신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청은 “에너지·산업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청은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10GW 규모로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RE100 모델을 구축한다.

수상태양광 등 5GW는 2030년까지 가동하고, 조력 발전 등 5GW는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RE100 산단 종합계획을 내년 3월에 수립하고,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험산단에는 30MW 태양광 단지와 계통 인프라를 구축해 2026년 9월 1단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2구역 10㎢ 규모에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개발’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새만금은 AI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현대차와 함께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DRT(수요응답형 교통),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등 미래형 교통 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화물차 자율운집주행 테스트 인프라를 내년 6월까지 조성하고, 무인수상선·수중로봇 실증을 위한 해양모빌리티 전용 부두 설계도 해수부와 협업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

소 대규모 실증사업 유치, 세계농업대학 설립, 의료용 헴프 수출 특구 조성 등 K-식품·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산업단지 개발도 속도를 낸다.

새만금산단 8공구는 2026년 하반기 부지 공급을 목표로 조기 매립에 들어가며, 제2산단(10㎢)의 통합개발계획도 같은 해 마련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확대, 관세 우대를 적용하는 종합보세구역 확장, 규제 완화를 위한 메가샌드 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교통·물류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지역간연결도로(2030년 완공), 남북3축도로 타당성 조사(2026년), 신항만 2선식 개항(2026년 12월), 인입철도 설계(2026~2028년) 등이 추진된다.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상수도·방류관로 등 필수 유틸리티도 강화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양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형 관광지 개발도 속도를 높인다.

새만금의 첫 정주 도시인 수변도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6년 상반기까지 AI 기반 도시 운영 구상을 마련해 ‘AI 시범도시’ 지정 추진하며, 공공임대주택(80호), 통근버스(7대) 지원 등 정착 환경도 개선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해수유통 확대와 방조제 수문 증설 검토가 진행되며, 도시 안전을 위한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중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만호 기자

도,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비 98억 추가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98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병원은 전주시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7층, 연면적 1만 7,103㎡ 규모로 건립되며, 150병상의 입원 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 병동, 재활 전문 외래진료 기능을 갖

춘 권역 재활의료 거점기관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의 영향으로 기존 560억원에서 7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도는 올해 안으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6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